

7. 임마누엘이라 하리라.(2011. 8.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님의 다른 칭호 임마누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난 시간에 구주가 탄생하신 일과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15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래 역사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히1:1)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700년 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밝히셨습니다. 구주는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이 말씀에 처녀에게서 탄생할 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23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하여 “우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우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중에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5:19)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들 사람 중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요1:14)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임마누엘에 대한 사실을 제도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성소제도입니다. 성소 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확실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출25:8,9]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을 때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천막을 치고 우리 중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출25:8을 설명한 말입니다. 구약의 성소제도로 예언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천막으로 삼으시고 아담의 후손들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 사실을 영감과 계시에 의하여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천막으로 삼으시고 사람 중에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이시며 사람이 되신 성소이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의식들은 성소 자체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는 지를 가르쳐주는 예언적 표상들입니다. 성소봉사에는 제사가 필수적입니다.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제, 전제, 요제, 거제, 화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봉사의 면면을 상징과 표상을 설명하는 제도들입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들은 고체 제물, 액체 제물, 기체 제물들이 있습니다.

고체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생의 짐승들입니다. 그것들은 양, 염소, 소, 비둘기 등등입니다. 그리고 곡식도 고체제물입니다. 액체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부어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데 다른 말로는 관제라고 합니다. 포도즙과 물과 국 등이 있습니다. 기체 제물은 향을 사르는 것과 등불을 켜 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생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곡식제사는 떡 상에 차려놓는 떡이 있고, 제사장 위임식할 때도 과자와 떡을 굽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인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출29:2) 이것은 원어로 무교병은 렉헴인데 먹다, 싸우다, 이기다라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또 무교과자는 할랄인데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놀리다, 모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교전병은 라키크인데 침을 빨다, 두들겨 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떡들을 만들어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는 날 드리는 예물에도 포함되었으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제사에 첨가하여 드리는 소제도 역시 곡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떡을 만들기 위하여 찧고 빵고 갈고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시는 고통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교병들의 이름에 포함된 의미들에서 구주의 고난의 모습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번역된 렉헴은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보여줍니다. 무교과자인 할랄은 못에 찢려 구멍이 나도랏 상처 입은 수족과 모독 받고 놀림을 당하시는 수치와 무교전병이라고 번역된 라키크은 침 빨음을 받고 두들겨 맞으신 예수님의 처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런 떡을 드리게 한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하시는 수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나타내는 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간의 질고와 고통과 사망을 대신 지시고 처리하시는 구주의 속죄 봉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구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

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존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소제도와 그 봉사에 나타나는 이런 사정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소봉사에는 매일의 봉사와 매년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 또는 항상 하는 봉사를 성경 히브리말은 타미드라고 합니다. 성소봉사에 타미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고, 항상 떡상에 진설해놓은 떡이 있으며, 언제나 불을 켜놓은 등대 봉사, 그리고 매일 분향하는 분향단 봉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타미드 봉사입니다. 이것은 참 성소가 되어 오신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자세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에는 여로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가장 중심 되는 제사는 아무래도 속죄제일 것입니다. 혹시 번제를 꼽을는지 모르지만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사망의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며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성소에 이런 봉사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떡 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등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 단은 우리를 대신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임마누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히브리 7:25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는 인류의 죄를 속하여 사망을 처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소에서 하는 봉사는 공급의 봉사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공급의 봉사입니다. 구원받는 일과 구원받은 후의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지원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두 가지 봉사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라고 했습니다. 이 봉사는 성소의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성소의 뜰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와 또 지성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떡 상, 등대, 분향 단은 다 성소에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칸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째 칸 다음에 둘째 칸이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껍고 화려한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궤와 뚜껑과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새긴 돌비입니다. 지성소 봉사는 일년에 한 번만 하는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 봉사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국민이 자기를 살피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꼼꼼히 살피서 허물된 것들을 완전히 회개해야 하는 날인데, 사실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렇게 살피고 이날에는 그 확인을 받는 날입니다. 이 기간을 그들은 “야밋 노라이”이라고 하는데, 용서를 받는 날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 잘못된 것과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다 용서받도록 허락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10일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일종의 심판의 기간

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비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의하여 용서와 정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지요.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취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소의 원형이시며 모든 성소봉사의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성소 안에서 생활하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고된 그 죽음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한 연합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과 뼈를 가지신 인자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성소적 봉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소의 실상이시기 때문에 건물로 지어진 성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성소봉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친히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흘린 피로 속죄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 양식이 되시며 그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로 열어놓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회장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지성소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세상에 두신 성소는 하늘에서 성소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가르쳐주는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히9:6~14]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세상에 두셨던 성소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친히 성소와 대제사장과 또 희생제물

과 세상에 있던 성소에서 수행된 모든 것이 되셔서 봉사하십니다. 세상에 있던 성소의 모든 조건들은 임마누엘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심판하실 때라고 계시합니다. 계시록 14:7입니다. “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지성소봉사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할 때는 7월 1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예수께서 지성소봉사를 하실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17:31에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했지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작정한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시작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소와 그 제도와 그 봉사의 사상이 다 들어 있는 이름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될 때에 죄인인 사람도 불타서 영원히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봉사가 바로 속죄봉사인 것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므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속죄하시는 사실이 분명히 포함된 이름입니다. 속죄의 최종 단계가 지성소봉사입니다. 지성소봉사가 끝날 때 죄는 완전히 처리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온전히 정결하여집니다. 레위기에는 이 사실을 밝히 설명했습니다.

[레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인류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침내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그분을 믿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1천년이 지난 후에 이 지상으로 새 예루살렘성과 함께 내려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을 그들이 소원한 대로 그들의 모든 존재를 반납 받으셔서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곧 구원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화와 행복으로 살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21:3,4]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모든 사실이 임마누엘의 이름에 포함되었으며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 전에 예언했습니다.

[겔48:35]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인데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다 아시지요. 그날 그 성에 함께 거하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경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가 범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성소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삼마를 경허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